금요 수필

길을 잃지 않는 꿈을 찾아서… 상하이 · 항주 기행

성 민 재
수필가

2026년 6월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여행객들의 설렘으로 분주했다.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과정 제4기 해외연수단의 일원으로 중국 상하이와 항주를 방문하게 된 나는 출국장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오래전 중학교 교실이 떠올랐다. 담임선생님께서 장래 희망을 적어 보라고 하셨을 때, 친구들은 기술자, 의사, 교사, 군인을 적어 내려갔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네 글자를 적었다. '외교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학업과 직장생활, 수많은 만남과 이별 속에서 그 꿈은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 갔다.

오전 9시 10분, 상하이행 비행기는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는 마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흰 도화지 같았다.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 센스타임(SenseTime)을 방문했다. 미래 기술이 현실이 되는 현장을 직접 보며 세계의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감할 수 있었다. 기술은 이미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황푸강의 야경이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자 상하이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다. 강 건너 동방명주는 보석처럼 빛났고, 초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조명은 밤하늘을 수놓았다. 강물 위로 번지는 불빛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듯 아름다웠다. 나는 연신 휴대전화를 꺼내 셔터를 눌렀다. 억지로 찍는 사진이 아니었다.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저절로 손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이 얼마나 넓고 눈부신지 새삼 깨달았다.

둘째 날 방문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였다. 낡은 계단과 오래된 벽, 좁은 사무실을 바라보는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나라를 잃은 절망 속에서도 독립을 꿈꾸며 조국의 미래를 준비했던 선열들의 뜨거운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했다.

그곳에서 나는 '뿌리'의 중요성을 생각했다.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릴 때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듯이, 사람도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수많은 애국지사에게 다음 깊이 경의와 감사를 표했다.

이어 방문한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또 다른 감동을 안겨 주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외교공관 앞에 서자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순간, 나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수십 년 전 외교관을 꿈꾸던 중학생,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에 서 있는 나. 두 사람이 한 장의 사진 속에서 조우(遭遇)한 듯했다.

문득 몇 년 전 수업의 일환으로 방문했던 주일대한민국대사관이 떠올랐다. 그때는 단순한 견학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상하이 총영사관 앞에 선 지금, 그 기억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도쿄에서, 그리고 이곳 상하이에서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공관 앞에 두 번이나 서 있었던 것이다. 중학교 시절 외교관을 꿈꾸었던 나에게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평범한 경험이 아니었다. 비록 외교관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꿈은 사라지지 않은 채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내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리라.

셋째 날, 우리는 항주로 향했다. 고속철도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편안했다. 이국적인 대지를 달리는 기차 여행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다. 반주했던 일상은 잠시 멈추고, 오직 '현재'라는 순간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항주에서 방문한 화웨이 연구개발센터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첨단 기술이 탄생하는 현장은 조용했으나 강인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연구원들의 진지한 눈빛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흔적은 미래를 향한 열정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견학을 다 치고 나오며 문득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더욱 연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연구에는 정년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3박 4일의 일정은 어느새 끝을 향해가고 있었다. 귀국을 위해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황푸강의 눈부신 야경, 임시정부 청사에서 느낀 역사와 뿌리의 가치, 총영사관 앞에서의 벅찬 감동, 항주로 향하던 평화로운 기차 여행, 그리고 화웨이 연구개발센터에서 품게 된 새로운 다짐까지. 그 모든 순간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은 결코 직선이 아니었다. 때로는 돌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나온 궤적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굽이진 길은 결국 오늘의 나를 이곳까지 데려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중학생 시절 품었던 외교관의 꿈은 소멸한 것이 아니었다. 그 꿈은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과정이라는 배움의 길로 이어졌고, 일본과 중국의 대한민국 외교공관 앞에서 다시 나를 마주하게 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꿈은 반드시 처음 생각한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돌아 다른 길을 돌아 우리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순간에 우리는 깨닫는다. 꿈은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상하이와 항주에서의 이번 여정은 단순한 해외연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나의 꿈이었고, 지나온 삶의 궤적을 고 고히 되새기게 한 소중한 인생의 순례였다.

*성민재 수필가는 '전북문단' 신인상 수상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전북문협, 전주문협, 영호남수필, 한국신문학인협회 전북지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근무하고 있다.

사 설

편의점 의약품 20종으로 확대 방안 추진

약국이 문 닫는 밤이나 휴일에도 요즘은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 있다. 2012년에 시행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덕분이다.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살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해열진통제 두 종은 생산이 중단돼서, 지금은 11개 품목만 살 수 있다.

이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시행 14년 만에 최대 20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주택가는 가장 가까운 약국도 1km 넘게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급히 약을 구할 땐 편의점을 찾는다. 약국이 문 닫는 밤이나 휴일에 특히 수요가 많지만, 약 종류가 적은 점은 한계다.

대체로 시민들은 편의점에서 파는 약 품목을 늘리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약사단체 등의 반발에 가로막혀 2012년 이후 한 품목도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시민 편의를 위해 품목 확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사제와 제산제 등을 추가해 최대 20개 품목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약국이 없는 무약촌이라면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단체는 약의 오남용이나 안전성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품목과 판매처를 늘리는 것보다 판매자 교육과 관리 감독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안전 상비 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제9회 민화동행회원전

2026년 제9회 민화동행회원전이 '소망을 담은 민화, 마음에 호·르·다 를 주제로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차오름 1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민화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들이 선을 보였다.

연꽃향연, 서수낙원도, 기응도, 춘설지정, 시선, 가슴에 품은 석류 등 건강과 화목,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민화동행회는 문금송 전북대 평생교육원 교수의 지도를 받는 전북 지역 민화 작가들의 모임으로, 회원들은 매년 정기전을 통해 창작의 결실을 나누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김지숙 회장을 비롯해 강성숙, 강영숙, 고지연, 김미옥, 김애자, 김은경, 문금송, 문심교, 박영숙, 백지숙, 변은숙, 송유자, 안수진, 안옥순, 양한빈, 양현순, 유경란, 은경희, 이명진, 이성례, 이승현, 이은하, 이지윤, 이현옥, 임은경, 장영주, 정지혜, 최경희, 최규동, 최복륜, 최영미, 최영희, 최은자, 한영진, 허영옥 등이 참여했다.

김지숙 회장은 "회원들은 전통 민화의 소박하고 따뜻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각자의 작품세계를 꾸준히 확장해오고 있다"며 "정성껏 준비한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금송 지도교수는 "작품 활동에 매진해온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창작과 전시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전시가 관람객 모두에게 일상 속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독자제언

'출근길 숙취운전'도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술자리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는 어느 정도 정착된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간과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숙취운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몇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깰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바로 '숙취운전'입니다. 이는 엄연한 음주운전이며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체중과 성별, 마신 술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몸이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잠을 잤다고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마법처럼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침 출근길 교통사고 및 음주단속 현장에서 면허 정지나 취소 수치가 나오는 운전자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더 큰 문제는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 능력 저하입니다. 몸속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느낄지 몰라도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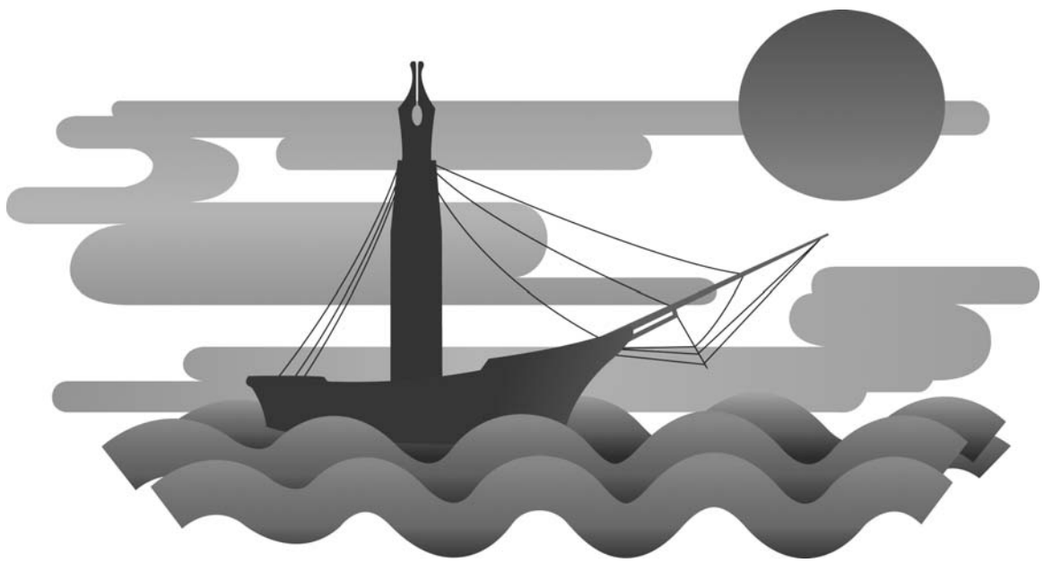
숙취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운전대를 잡는 않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김동현 완주경찰서 삼례파출소 경위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 · 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